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쉬이트 프랑세즈》를 차지하라!

지난 10월에 개최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14개국의 대표출판사가 이렌 네미 로브스키의 소설 《쉬이트 프랑세즈(Suite française)》에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2004년 9월에 출간돼 한 달 만에 3만여 권이 판매된 《쉬이트 프랑세즈》는 '뒤틀린 인간의 운명을 다룬 서사가 충격적이다, 문학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았다. 소설의 배경은 세계 2차대전, 독일의 프랑스 점령 초기. 소설의 작가가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된 지 62년 만에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 영국 아마존 서점, 크리스마스 시즌 마케팅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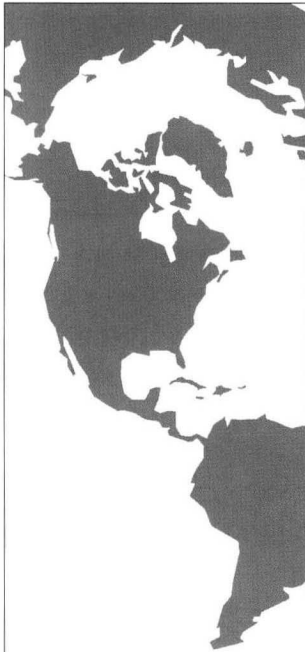
영국 아마존 서점이 '저자 인터뷰' '저자의 조언' '짧은 이야기' '음성 메시지' 등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시즌 도서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안 랜킨, 마이클 펠린, 알렉산더 맥콜 스미스, 존 모타이머, 존 스노우, 수 타운센드 등의 작가들이 아마존 서점 웹사이트 '크리스마스 스타' 라는 코너에 도서홍보를 위한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안 맥그리거와 찰리 부어맨은 자신들의 책 《Long Way Round》에서 발췌한 사진과 캡션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스타'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마존은 작년 미국에서 60명의 유명인사들을 동원해 새로운 음악, 도서, 영화를 홍보하는 유사한 마케팅을 갖기도 했다. 영국 아마존은 이번 크리스마스 전후 기간 동안 신간도서, 식음료, 오디오북, 추리소설, 아동도서를 40퍼센트 할인해 판매한다고 전했다.

● 채널 BBC, 도서홍보 프로그램 마련

BBC는 저녁 황금시간대에 도서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예술프로그램 《The Culture Show》를 방영할 계획이다. 《리처드와 주디》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도서들의 큰 성공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 역시 도서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The Culture Show》는 11월 중순경 첫 회를 내보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정기적으로 방영된다. 《The Culture Show》에서는 신간도서, 작가 인터뷰, 트렌드를 소개할 계획이며, 또한 다른 예술분야의 뉴스와 리뷰도 함께 소개한다.

● 독일, 한 가구 한 달 도서구입비는 12유로

독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3년 상반기 통계에서, 한 가구 한 달 도서구입비로 12유로(1만8,000원)를 지출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1998년 상반기 통계를 참고할 때 1유로가 늘어난 수치다. 독일의 물가인상률을 참고한다면, 몇 권의 책을 더 구입한 것은 아닌 셈이다. 직업군 가운데 공무원이 23유로, 자영업이 21유로로 평균 2배 이상 도서구입비를 지출했으며, 노동자들과 연금생활자가 각기 9유로로 도서구입에 가장 적은 지출을 했다. 월수입이 5,000유로(750만 원)인 가구는 매달 도서구입을 위해 25유로를 지출했고 월수입이 900유로 미만인 가구는 평균 5유로를 지출했다.



● 2004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네크 작품 판매 호조

2004 노벨문학상 수상자 엘리네크의 작품이 평균 이상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 아마존 인터넷 서점은 엘리네크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된 이후 그녀의 소설 《피아니스트》《갈망》《욕망》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진입했음을 전했다. 《피아니스트》의 경우, 독일 대형서점 후건두벨 뮌헨점에서 700부, 베를린점에서 400부가 한 달 동안 팔려나갔다. 그녀의 소설 《갈망》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영국에서도 엘리네크의 소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엘리네크 소설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출판인 피트 에어튼 씨는 “엘리네크는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출판계와 서점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물”이라며 엘리네크 효과가 이어 지기를 바랐다. 피트 에어튼 씨의 출판사는 《갈망》《애인》《쫓겨난 자들》을 각각 2만 부 추가 인쇄했고, 《피아니스트》의 경우 5만 부를 더 인쇄하기로 했다.

● ‘가르시아 마르케스’ 책 판매도 명성만큼

《백년 동안의 고독》의 작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미국의 스페인어 출판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다. 마르케스의 신작 소설 《나의 슬픈 창녀들의 추억 Memoria de mis putas tristes》은 출판된 지 2주도 안 돼 베스트셀러 자서전 《살아서 진실을 말하라 Vivir para contarla》의 판매량을 두 배나 앞서고 있다. 《나의 슬픈 창녀들의 추억》 문고판은 11월 현재 10만 부를, 장정본은 2만5,000 부를 판매했다. 이 책의 출판사인 랜덤하우스는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리고 있는 스페인어 도서”라고 소개했다. 랜덤하우스는 스페인어, 영어 출판물에 광고를 내 보내고 있으며, 체인 서점에 600여 개의 전시대를 마련해 놓는 등, 스페인어 도서사업에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베를린영화제를 만나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는 2005년부터 베를린국제영화제와 협력, 출판 산업과 영화산업을 가깝게 하고 영화관련 저작권 거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조직위원회는 각기 행사에 공동프로그램을 마련,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출판사들을 참여시키고,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영화사들을 참여시키고자 한다. 그 첫 번째 협력으로 내년 2월 열리는 제5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공동제작마켓의 일부로 ‘공동 전문가 행사’가 진행된다. 그 외에 출판계와 영화계가 매일 만나서 서로의 분야를 소개하고 서로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출판인들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2003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영화 & TV 포럼’에서 베를린국제영화제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던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전시장 내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